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36	다 같 이
기 도	Prayer	남영아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25:2-17	인 도 자
설 교	분노로 나타난 다윗의 교만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50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김정순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오후 7시 (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1월 4일 제66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다윗은 피신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선한 일들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환경은 열악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선한 일들보다는 악한 일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지만 다윗은 쉽게 생존하려 하기보다 옳게 선하고 바르게 생존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며 다윗이 하였던 것은 산적과 같은 강도떼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양떼들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성실하게 지켜 주었는데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풍성한 시기에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 안부를 전하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좀 나누어 달라고 청합니다. 광야생활을 하며 어렵게 지내는 동료와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나발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애썼던 것을 생각하며 더불어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을 문전박대합니다. 다윗이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이 분명합니다. 보통 때의 다윗 같으면 나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런 어리석은 자가 다 있나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용서하고 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합니다. 삼상25:22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물론 선의를 악의로 대한 것은 나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 안 주었다는 것이 나발과 온 식구를 다 죽이고 그의 식솔들까지 다 죽일 만큼의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분노로 어쩔 줄 모르며 나발을 처단하러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하였던 다윗이 나발의 오만함을 참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대단한 시험과 위기에 넘어지기보다 사실은 하찮은, 변변찮은 문제에 넘어지고 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 깊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하고 어려운 문제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시시한 문제에 넘어지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위기 다 넘기고 누구나 넘을 수 있는 시시한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윗의 분노는 숨겨진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이면에는 다윗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교만은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교만이 드러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가 분노입니다. 분노가 왜 교만입니까? 가난할 때에 힘없을 때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언제 분노합니까. 내가 좀 힘이 생기고 내가 좀 능력이 생기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알아준다고 할 때에 그것을 건들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분노지만 본질은 교만입니다.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나발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칼을 빼어 처치해야 합니까? 아니죠 필요하니까 남겨 둔거죠. 필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우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들로 인해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겸손하면 나발과 같은 내 주변의 방해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어리석은 자와 마찰을 일으킵니다. 왜 ?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당하고 저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싸우면서 자라나는 영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성은 망가집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두 눈 부릅뜨고 그 억울한 일과 맞서서 싸우라고 가르치는 말씀,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적에게서 눈을 돌려서, 어리석은 자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회복한 겸손의 영성이었습니다.

분노와 혈기는 변장된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 보다 앞서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다 앞서서 잘 되는 인생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할 때마다 내 안의 교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쫓겨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능력은 분노와 복수가 아니라 겸손과 용서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예배 후에 10월 사역보고 및 월례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모든 사역 팀들은 사역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된 모든 내용을 홈페이지 사역보고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5시30분에 모입니다. 기도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셋째 주일인 18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5. **박준호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최정아 성도님 사업체와 예배참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남관희 집사님이 한국방문을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55.00	
감사헌금:	$220.00	
주일헌금:	$52.00	
특별헌금:	$0.00	**합 계: $627.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